

제2강좌) 예수의 죽음이해: 죽음과 영생에 대하여

강연: 김 경재(한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1] 현대문화 속에서 죽음의 중성화와 죽음에 대해 말하기 터부화 과정

현대문명은 그 삶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각 개인-집단-분야 간의 관계성, 연대성, 사회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집단적이며 대규모로 죽음사건에 노출되고 있다. 전쟁과 테러에 의한 대량살상, 대형교통사고, 광범위한 전염병과 불치병의 확장, 대형안전사고 및 자살 등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불감증 상태로 되어간다.

죽음문제는 분명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없건만, 현대인은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려한다. 죽음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기를 터부시하는 문화는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 죽음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도 좋을 만큼, 현대인들은 생물학적 죽음이해로서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일까? 물어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상황이니까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보다는 사는 일에, 더욱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자는 것일까? ‘죽음과 관련된 전문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현대인은 죽음으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다. 죽음이 소외되면 삶도 소외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의사, 간호사, 장의사, 성직자, 묘원관리자 등이 각각 맡은 전문적 지식으로 인간의 사후처리를 돋지 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죽음경험을 통해 인간이 체험해야 할 중요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서 모두 빼앗겨져 버렸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죽음의 사건과 그 사후처리 과정에서 방관자가 되도록 사회구조가 전문화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체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사회는 임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모든 가족이 둘러서서 지켜보았고 그 무엇인가를 느끼고 깨닫는 ‘통파제의’를 경험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장례를 치루고 나면, 삶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긴 어렵지만 훨씬 성숙해지곤 했다.

인간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삶을 보다 바르고 알차게 살자는 삶의 문제 때문이다. 죽음과 삶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주제가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마 22:32, 막 12:27)는 말은 성경의 하나님은 산 자들만 상대하고 관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다. 누가복음은 위의 복음서 이야기 끝에 덧붙여 부연하여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눅 20:38)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안에서는 ‘삶과 죽음’(생사)이 더 큰 생명의 리듬 안에서 이뤄지는 어떤 계기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20세기 개신교의 큰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작은 팔호 안에서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팔호를 감싸고 계시는 더 큰 팔호가 되신다. 우리의 탄생과 죽음 그 바깥쪽엔 허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아시아의 모든 위대한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죽음 문제를 ‘들숨과 날숨의 리듬’ 같이 이해하면서 죽음을 대범하게 친구처럼 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문제는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음이 쏘는 가시’가 동반되는 정신적, 영적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은 궁극적으로는 ‘극복’되어야 할 그 어떤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끝’이 있어서 죽음이 두렵거나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죽음을 인간답게 죽어야 하며,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음의 권세에게 넘기는 ‘어둠의 권세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과 능력에 완전히 감싸인 삶을 살았던 성 프랜시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두려운 적이 아니라 누이 같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성도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지방을 건너가듯이 두려움 없이 죽음의 문턱을 가볍게 넘어갔다. 문제는 아직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죽음 일반의 담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존문제로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로서 죽음을 진지하게 대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참으로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하찮은 일이나 이차적인 것을 얻으려고 귀중한 삶의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에서 훌연히 깨쳐 나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 밖에 없는 “죽음으로 운명지어진 존재이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의 기억의 일거리로 된다. 실존적 죽음의식에 투철할수록, 영원무궁의 시공간 속에서 찰나 같은 순간의 시간을 생명의 언덕 위에서 생명을 향유하도록 허락받고 있다는 사실이 한없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다.

[2]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죽음에 대한 3가지 중요한 가르침

(1) 마태복음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멀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동안 ‘죽음에 대하여’ 차분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거나 형이상학적 ‘죽음학’을 설파하신 적이 없었다. 도리어 가족의 장례를 다 치루고 난후에 예수님이 따르겠다는 젊은 청년에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반인륜적 태도마저 보이신 적이 있다.

예수님은 불쌍한 서민들의 죽음당한 고통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웅하셨지만, 죽음을 단순히 ‘생물학적 끝이나 소멸이라는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세상의 권세세자들이나 악한 자들은 고작해야 ‘생물학적 몸’을 죽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영혼을 죽일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다.

영혼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것 같은 육체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불멸적인 ‘신적 실체 같은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영혼은 ‘연기 같고 유령 같은 초자연적 불멸실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속사람이며, 신령한 영적 피조체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관계하시며, 죽음 이후에도 영체(靈體)로 덧입히신다.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동시에 살게도 하고, 영원히 죽게도 한다.

몸이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초자연적 정신실체가 영혼이라기보다, 반대로 생각하여 인간은 그 전체가 영육통일체(靈肉統一體)로서 ‘생령적(生靈的) 존재’이며, 그 보이는 외면성은 몸이고, 보이지 않는 내면성은 영혼이다. 예수는 그 양면성을 동시에 멀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가르치셨다.

(2) 둑 20: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를 모함에 빠뜨리려는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5절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후사 없이 죽은 장형의 아내를 취한 질형제가 있다면,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는 난감한 문제를 제시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했다.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사후와 부활의 생명세계는 시집-장가가는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 천사들처럼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하셨다. 예수님의 생명관과 사후영생관을 잠시 보이신 것이다.

사후세계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과 상상은 금물이다. 그 일은 우리의 오관의 감각이나, 이 세상의 시공세계의 경험세계 질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정위된 더 높은 생명질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신의 숨이 끝난 것으로서 생명이 다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생명이 살아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사망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 퀴볼터 로스는 『죽음 이후의 생』(Life after Death)을 남겼는데, 수 많은 임사체험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후 직후 “빛 체험”을 비롯한 영계질서 체험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근래 가톨릭교회에서는 ‘연옥설’을 영혼의 정화단계를 위한 창조주의 은총질서라고 해석한다. 하나님이 응징의 심판을 하신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사랑과 빛과 은총의 생명질서’에 적합하지 않은 영혼들이 스스로 모인 영계가 ‘어둔 곳’이라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스웨덴보리(1688~1772)는 과학자이자 신비사상가요 철학자였는데, 『천상의 비밀』이라는 책이나 『천상의 놀라운 세계와 지옥에 대해서』라는 저작을 남기고 있는데, 사후 영혼과 영혼세계가 단순한 신화적 공상의 산물이 아니고 실제로 있다고 그의 체험을 증언하면서 철학자, 과학자, 신비가로서의 신학자의 통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요11: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기자는 부활생명을 종말의 미래 어느 날에 부활한다는 ‘미래적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현재적 부활생명’, 곧 진정한 복음의 생명능력 안에 거한 자는 이미 죽음을 넘어서 영원을 살기 시작했으며,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죽음의 권세가 소멸되었고, 그는 현재적 시간 안에서 영원을 이미 살고 있음을 말했다. 원효(617~686)식으로 말하자면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途出生死)의 경지가 된다.

기독교 신앙의 묘미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면서도 영혼 곧 사람의 내적 생명 차원에서는 이미 현재에 이미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처럼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환희 속에서 살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신앙인에게는 사실 생물학적 죽음의 현상으로서 ‘생사문제’가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평온한 자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시골할머니들의 평온한 죽음 맞이, 의학적 불치병을 맞이하여 고투하면서도 불평이나 불안이나 원망을 이미 넘어서고 도리어 의료인들과 주위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죽음을 태연하고도 가볍게 맞이하는 신앙인들을 보면, 위에서 인용한 성경말씀이 진실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3] 영성생활에서 기독교 사생관 정립의 의미

기독교는 모든 만유와 만사를 하나님과의 관련성 안에 있다고 신앙고백 한다.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존재하는 세계에도 나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닐다가, 악과 죽정이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귀향한다고 믿는다.

인간존재 그 자체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로서, 자연의 일부로서 유한하고 제한적인 시공세계 안에서 삶을 누리도록 허락받았다고 고백한다. 어느 시인(구상)의 시구처럼, 생명체들은 영원과 무궁의 부분이고, 표현하고 사랑할 뿐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덧없는 존재이다. 이 생명체가 영적 생명체로서 초월을 경험하고 초월자와 영적 교통을 하고 사귐을 가지며, 영원하신 거룩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은총의 허락이고, 선물이며, 찬양할 일이라고 고백한다.

영원한 생명체, 불멸의 생명체로 거두어지고, 지탱되고, 영적 몸을 덧입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의 선물이지, 피조물의 자연스런 당연한 권리이거나 존재질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단순한 우주법칙이거나 원리이거나 우주적 형상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신비자 당신’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후에 인간 생명은 ‘우주의 원기’에로 단순히 환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윤회환생하는 것도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그러나 현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차원이 다른 영적 생명세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물받을 것임을 믿는다.

문제는 현재의 삶이다. 현재의 시간은, 영원한 삶을 현재 시간 안에서 형상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영원한 현재로서의 시간’이라고 본다. 특히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도록 사랑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체험하고 연습하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생각한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부활체험 신앙이 중요하며, 다석 유영모의 말처럼 ‘하루 나이 셈법’으로 살아가는 깨어 있는 삶이 중요하다.

안병무가 적절하게 표현한 바처럼, 유교는 유달리 ‘주검’에 대한 의례를 발전시켰고, 불교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망집(妄執)을 극복하도록 하는 데 관심했으나, 기독교는 ‘죽임의 세력을 극복하는 일’에 관심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요 16:33)고, 십자가에서 숨을 마치는 시간에 “다 이루었다”(요 19:30) 하셨다.

종교마다 죽음 극복에 대한 가르침과 실천방도에 관하여 각각 독특한 특징이 있다. 유교와 도교를 탄생시킨 중국종교에 있어서, 죽음은 ‘우주생명이 근원적 원기(元氣 또는 一氣)로 복귀 혹은 환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삼라만물은 이 원기 또는 일기의 응결된 현상이며, 만물 중에서 인간생명은 그 영글음의 신묘함이 지극히 치밀하고 신비한 경지에 이를 것으로서 원기로 환원됨에 있어서 일반 동식물에 비하여 좀 시간이 걸릴 뿐, 결국은 모두 동일하게 그 원기(일기)에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엄밀하게 보면, 유교에서는 개인 영혼의 영원한 불사(不死)를 인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유교에서는 후손의 생명 속에서 생명이 영원히 이어져간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유교적 인생관에서 대의명분과 가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이유도 이해될 만 하다. 조상숭배로서의 제사행위는 “마치 부모의 혼령이 제사현장에 임재 하듯이” 정성과 효의 극치로서 제사를 모신다.

불교의 죽음관은 독특하다. 삶의 대립개념이나 현상으로서 죽음에 대한 허망한 관념의 인상을 벗어던짐으로서 “죽음은 알고 보면 없다”고 깨달음으로서 죽음을 극복하자고 가르친다. 알고 보면 ‘죽음현상’은 존재의 ‘연기’(緣起)과정의 한 계기인 것이라고 본다. 삼라만물의 유정(有情), 무정(無情)의 만법

(萬法)이 다름 아니라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파도의 물방울들이라고 본다.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있는 것들의 탄생, 성장, 노쇠, 죽음도 모두 일심(一心), 진여(眞如)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계기일 뿐이다. 그 어느 현상에 집착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한 죽음에 대한 일반 상식적 두려움과 공포는 사물의 실상을 깨뚫어보지 못하는 편견과 집착에서 발생한 허상이요 허구일 뿐이다. 외딴 산길에서 소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새끼줄이 독사(毒蛇)가 아니고 새끼줄임을 알게 될 때, 산행의 두려움은 즉시 사라진다.

기독교의 죽음관은 역시 독특하다. 세 가지 근본적으로 뿐리가 다른 세 가지 물줄기로 흐르던 죽음관이 합류하여 기독교 죽음관을 형성해왔다. 히브리적 죽음관, 헬라적 죽음관, 그리고 후기 유대교 종말론적 죽음이해가 그것이다. 히브리적 죽음관은 ‘자연사(自然死)’를 창조의 질서로 본다. “흙에서 취했은즉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흙’이란 ‘대자연’을 말한다. 헬라적 죽음관은 영혼의 불멸설이다. 물질로서의 몸은 유한하지만 영혼은 불멸이라고 보았다. 후기 유대교 종말론적 죽음관은 인과응보의 죽음관이다. 사람의 도덕적 책임과 영혼의 자유의지는 “심는대로 거둔다”는 엄숙한 생명의 근본원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의인과 진실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부활한다고 믿는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핀 세 가지 범주의 대표적 종교들의 죽음관 중에서 기독교의 죽음관은 가장 복잡하고 세 가지 영향의 합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독교가 인간의 죽음 문제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한다는 점이다. 지상의 생명도 사후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받아드린다. 그 생명의 존귀함은 자유, 정의, 평화, 사랑이 서로 입 맞추는 ‘더불어 삶의 사귐’ 안에서 꽂 편다고 본다. 기독교는 생명이 그렇게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힘들 곧 ‘죽임의 권세’들에 맞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자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종교이다.

예수는 바로 그렇게 생명을 이해했고, 죽임의 권세와 맞서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 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요한1서 5:5~6)